



장명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USC Dental School 졸업  
 Northwestern 치과대학 보철과 수료  
 Columbia 치과대학 악안면 보철 Fellowship  
 Marquette 치과대학 보철과 조교수  
 현재 가톨릭대학교 조교수

수년동안 가철성 의치의 기능성, 안정성 및 심미성을 최대화 하기위한 이상적인 인공의치 배열의 다양한 시도가 되어왔다. 그 많은 교합개념 중에서 Lingualized Occlusion이 매우많은 장점을 가지고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

Lingualized Occlusion은 1927년 Gysi 가 처음 도입하였으며 Payne이 1941년 그 실용성 및 적용성을 소개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교합개념이 심하게 흡수된 하악골을 가진 환자에게서 성공적인 저작효율과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한다.

Lingualized Occlusion은 주요 기능요소로써 상악 설측교두정이 하악치아의 교합면에 교합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상악 순측교두는 교합면보다 상방에 위치하여 교합적인 기능은 하지 않는다. 이는 보철물의 심미성을 증가시키는데 의미가 있으며 교합면으로부터 Cheek 을 분리시켜 Cheek Biting 을 막아준다.

Lingualized Occlusion의 개념에 의한 치아배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1) Better adaptation to different type of ridges, 2) Greater masticating efficiency, 3) Elimination of lateral interference, 4) Settling without unbalancing the articulation by cuspal interference.

이 경우 Bilateral Balanced Occlusion을 위해서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 하악 치아를 사용하며, Non-Balanced Occlusion을 고려할 시는 단일평면의 하악 치아가 사용된다.

Lingualized Occlusion은 그 개념의 단순성과 적용성으로 임상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교합개념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가철성 보철물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임상적 상황에 맞는 Lingualized Occlusion의 올바른 적용, 방법 및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다.